



## 신구 조화 KIA 'V12' 꿈 영근다

시즌 1호 완투승 주인공 양현종(오른쪽)과 3경기 연속 홈런을 장식한 최형우(왼쪽) 등 KIA가 '베테랑'을 중심으로 한 신구 조화를 바탕으로 우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양현종 1694일만에 완투승·최형우 3경기 연속 홈런 베테랑 경험·신예들의 패기...자리 구분없이 고른 활약



KIA 타이거즈가 완벽한 '신구조화'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고 있다. KIA의 올 시즌 강점 중 하나는 세대와 자리를 구분하지 않는 고른 활약이다. 베테랑의 경험과 신예들의 패기가 어우러진 전력,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KIA에는 KBO의 투타 레전드인 양현종과 최형

우가 있다. 그동안 쌓아온 기록은 물론 올 시즌 활약도 레전드에 걸맞다. 5월 첫날 승리에도 두 베테랑이 있었다. 1일 KT를 상대로 선발 등판에 나선 양현종은 1회 시작과 함께 실점했지만 이후에는 단 한명의 주자에 게도 홈을 허용하지 않았다. 양현종은 무엇보다 9회까지 나홀로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9-1 승리를 이끌고, 올 시즌 KBO 1호 완투승 주인공이 됐다. 개인으로는 완봉승을 장식했던 2019년 9월 11일 사직 롯데전 이후 1694일 만에 기록한 완투승이다.

타석에는 최형우가 있었다. 최형우는 이날 4회 KT 선발 원상현의 4구째 체인지업을 우중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3경기 연속 홈런을 장식했다. 이 홈런으로 KIA는 9-1을 만들면서 일찍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이범호 감독은 "양현종이 공을 던지는데 초반부터 볼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팀한테는 1승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경기였다. 며칠 전까지는 최형우의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 3-4일 전부터 스윙하는 느낌이 좋게 느껴졌다. 작년에 한참 잘 질 때만 같아 올 시즌 KBO 1호 완투승 주인공이 됐다. 개인으로는 완봉승을 장식했던 2019년 9월 11일 사직 롯데전 이후 1694일 만에 기록한 완투승이다."

최형우가 5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수비 나감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나성범의 복귀를 에타게 기다렸던 최고참은 팀의 막강 타선 구축을 위해 기꺼이 외야로 달려나갔다. 이런 분위기는 선수단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톱타자 박찬호가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마음을 졸이자, 김선빈이 톱타자를 자청해 타석 전면에 서기도 했다. 35세 톱타자가 3안타 활약을 해주면서 KIA는 4월 28일 LG전에서 10-7 재역전승을 거뒀다. 1일에는 서건창이 톱타자로 나서 2번 김선빈과 공격에 전면에 서는 등 KIA는 이날 '70세 테이블 세터'로 승리를 수확했다. 베테랑을 보면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 선배들도 후배 '덕'을 이야기하다. 야수 '막내' 김도영이 리그가 주목하는 타자로 활약하고 있고, 2년 차 최지

민·곽도규가 불펜 핵심으로 승리를 지키고 있다. 정해영도 KBO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주인공이 되는 등 후배들은 눈에 띈 성장세로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후배들과 더 많은 가을 잔치를 즐기는 게 목표"라고 언급해 온 최형우는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를 시즌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선수단 모두 노력하겠다"며 눈에 띈 성장세로 1위 질주를 이끌고 있는 후배들과의 가을을 기대했다. 양현종도 "팀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큰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크다. 그전까지는 책임감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선수가 잘하고 있고 팀이 상위권에 있어서 부담, 책임을 크게 가지지 않고 하면서 편하다. 내가 할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면 팀에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되는 집안' KIA '월간 MVP' 후보 3명

'4승' 네일·'최연소 100S' 정해영·'월간 10-10' 김도영 등 7명 각축

KIA 타이거즈가 '월간 MVP'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인다. KBO가 2월 3-4월 MVP 후보로 7명의 선수를 선정했다. KIA에서는 '공포의 스윙퍼'로 4승을 수확한 제임스 네일, '최연소 100세이브' 정해영 그리고 KBO 첫 '월간 10-10' 주인공 김도영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 원태인(투수) KT 강백호, SSG 에레디아·최정(이상 야수)도 MVP후보로 각축을 벌인다. 네일, 정해영, 김도영은 KIA의 1위 질주를 이끈 선발·마무리 그리고 타선의 핵심이다. 네일은 지난 2년 KIA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외국인 투수' 고민을 해결하며 기싸움을 이끌었다. KBO리그 데뷔전에서 롯데를 상대로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6이닝 1실점의 승리투수가 된 네일은 3-4월 6경기에서 나와 평균자책점 1.47을 찍으며 4승을 수확했다. 특히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이닝 당 출루 허용률(WHIP)도 0.98로 유일하게 1점대 이하로 잔물 투구를 했다. 정해영은 타이거즈는 물론 KBO리그 마무리 역사상 새로 썼다. 개막 이후 4월까지 13경기에서 나온 정해영은 2.08의 평균자책점으로 11세이브를 기록하며 KIA의 1위를 지켰다. 마무리 투수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세이브를 올렸으며, 11경기 중 10경기에서 자책점 없는 위력투를 선보였다. 4월 24일 키움전에서는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수확, 4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또 이날 정해영은 22세 8개월 1일에 통산 100세이브를 완성하면서, 임창용이 가지고 있던 23세 10개월 10일이라는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웠다.



네일 정해영 김도영

타석에서는 김도영의 활약이 눈부셨다. 김도영은 4월 25일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5회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포를 날리면서, KBO 리그 역사에 없던 '월간 10홈런-10도루' 기록을 만들었다. 김도영은 또 44안타(3위), 10홈런(공동 3위), 26타점(공동 4위), 29득점(2위), 장타율 0.638(2위)을 기록하면서 타격 부문 상위권을 장식했다. 14차례 베이스를 훑치면서 도루 부문 2위에도 이름을 올린 김도영은 프로 3년 차에 처음 월간 MVP 후보가 됐다. 한편 삼성 원태인은 4월 9일 사직 롯데전부터 4월 26일 고척 키움전까지 4연승을 달리는 등 꾸준한 투구로 삼성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자책점도 2.10으로 묶이면서 네일에 이어 2위다. SSG의 최정은 KBO리그 최다 홈런의 새 주인공이 됐다. 11개의 홈런을 쏟아낸 최정은 4월 24일 롯데 사직전에서는 통산 486호 홈런을 날리며 이승엽 두산 감독을 넘어 KBO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최정은 장타율 0.691, OPS 1.065로 1위에 올랐고, 27타점

## 열정의 우즈 "남은 3개 메이저 모두 출전"

5~7월 PGA 챔피언십 등 몰려

이런 시즌 필드로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남은 3개 메이저 대회에 모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미국 NBC의 프로그램 '투데이'에 출연해 "앞으로 석 달 안에 3개의 메이저 대회가 있고 그 대회에 모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15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우즈는 2021년 자동차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 달 열린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는 무려 16오버파 304타를 치는 최악의 스코

어 카드를 제출했다.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는 PGA 챔피언십(5월 16~19일·이하 현지시간), US 오픈(6월 13~16일), 브리티시 오픈(7월 18~21일)이다. 우즈가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려면 달에 한 번 꼴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우즈는 2019년 이후에는 한해에 4개 메이저 대회에 모두 출전한 적이 없다. 한편, 매일 찬 물에 몸을 담그며 부상 부위를 치료하고 있다는 우즈는 현재 세계랭킹 1위 스키티 셰플러(미국)를 "정말 공을 잘 치는 선수"라고 인정했다. 우즈는 "셰플러의 공 궤적을 보면 정말 특별하다"며 "셰플러의 퍼트가 잘 되는 날에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펜싱, 안방서 '올림픽 모의고사'

4~6일 서울서 국제그랑프리 대회

한국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안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로 경쟁력 확인에 나선다. 대한펜싱협회는 국제펜싱연맹(FIE)과 4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24 서울 SK텔레콤 국제그랑프리선수권대회를 연다. 그랑프리는 펜싱 국제대회 중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많은 세계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권위 있는 대회로, 한국은 2015년부터 사브르 그랑프리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엔 34개국 2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한국에선 남자 대표팀의 베테랑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필두로 4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특히 파리 올림픽을 두 달 남짓 앞두고 대회가 열려 '모의고사' 성격도 지닌다. /연합뉴스

한국 사브르 선수 중 개인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오상욱(대전시청·5위)은 남자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오상욱은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해에도 정상을 지켜낸 바 있다. 오상욱,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가 오래 호흡을 맞추며 도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등을 이끌었던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김준호의 국가대표 은퇴 등으로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여자부에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윤지수와 2001년생 기대주 전하영(이상 서울시청) 등의 활약이 주목된다. 펜싱 그랑프리 대회는 개인전만 진행된다. 4일엔 남자부 예선, 5일엔 여자부 예선이 열리며, 마지막 날인 6일 남녀부 64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